



가을철 봉군관리

경기도 평택시 박영준

1. 개요

가을철의 봉군관리는 봄 벌 관리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벌이 좋아야 내년 봄 벌과 생산적인 양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치게 인위적인 관리보다는 자연을 역행하지 않는 관리 즉, 벌들이 행동하는 대로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협회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노력하신 바 협회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관계로 각 분회별로 교육을 통한 양봉기술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봉군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벌들의 습성과 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왕벌을 유입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야 성공한 것인가? 가을에 태어난 어린 일벌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월동준비를 하는가를 잘 관찰하여 그때 그때마다 즉시 대처를 해주어야 하며, 조그마한 방심과 실수도 꿀벌의 세계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리에 임해 주어야 합니다.

2. 관리요령

1) 혹서기를 어렵게 넘기고 8월 20일경이 되면 벌들은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소상내에서 알아차리고 종족보존을 위하여 월동준비를 위한 왕성한 산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성한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젊은 여왕벌이 있어야 하는데 신왕이라고 해서 산란을 잘 하는 것은 아니고 8월 초순까지는 신왕 유입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 때까지 신왕 유입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아주 나쁜 구왕만 아니라면 그대로 두었다가 월동사양이 끝난 후에 유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늦게 신왕을 유입하

게 되면 구왕만도 못하게 됩니다.

2) 그 다음에는 먹이 관리인데 너무 식량이 많아도 산란하는데 지장이 있고 너무 적어도 산란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대략 밀방집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사군상이나 교미상에 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인데 사군상 같은 것은 매수가 작고 대부분 사양기가 없어서 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세가 약하니까 사양기에 사양을 잘 해주어도 잘못하면 도봉이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4) 필지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에 녹이지 않은 사료 그대로를 소상 바닥에 부어주면 되는데 부어줄 때는 출입구를 피해 넣어 주어야 합니다. 출입구 쪽에 사료를 주면 밖으로 새 나오기 때문입니다.

벌들은 조금씩 녹여가면서 물어갑니다. 낮에 주어도 도봉이 발생되지 않으며 아무리 약한 벌이라도 도봉을 당하지 않습니다. 군세에 맞게 부어주면 됩니다.

3. 월동사양시기의 선택

1) 가장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은 게 월동사양입니다. 또 어느 시점에서 월동사양을 시작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가을철 밀원 식물인 들깨와 고마니에서 유밀이 잘되면 약간 늦어지고 유밀이 잘 안되면 좀 빨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내검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충에 젖을 잘 주다가 조금씩 젖 주는 양을 줄여 갈 때가 있는데 이 시점부터가 바로 월동사양의 적기라고 보면 됩니다.

날짜로 말하면 중부지방은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되고 남부지방은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2일마다 한번씩 사양을 시작하게 되면 소상내에 열이 발생되므로 젖을 주고 있는 유충들은 억지로라도 키우게 됩니




다. 반대로 사양을 하지 않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온도가 내려감으로 인하여 어린 유충을 물어내게 된다.

2) 사양을 마치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9월 말일까지 남부지방은 10월 초순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일찍 마치는 것은 상관없이 없으나 늦게까지 월동사양을 한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어린 일벌들은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 동면을 하는 꿈이나 뱀과 같이 꿀벌도 반 동면 상태에서 겨울을 납니다. 동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체력보강) 꿀벌은 화분을 먹게 됩니다.

화분을 먹고 탈분을 하고 또 화분을 먹고 탈분하고 이러한 과정을 4-5차례 반복을 해야만 비로소 겨울을 날 수 있는 튼튼한 벌이 됩니다.

3)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 약 15일에서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월동을 날 수 있는 충실한 일벌이 되었으나 안되었나를 알아보는 방법은 벌을 한 마리 잡아서 배를 눌러 봅니다. 보통 육아를 할 시기에는 꿀벌의 배설물이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이때에는 배설물이 거의 없고 대신 배속에는 하얀 단백질이 배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에 창고 월동을 하는 양봉인들은 봉군을 창고에 입고 시켜도 무방합니다. 또한 노지에 월동포장을 하는 양봉인도 보온포장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월동사양을 일찍 마쳐야 합니다.

4) 벌의 수명은 육아 작업을 얼마나 많이 했나 적게 했나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늦게 출발 했다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양봉인은 늦게까지 봉충이 형성되어야 내년 봄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양을 빨리 끝내주어서 벌들이 충실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월동사양을 늦게까지 하게 되면 월동을 날 수 있는 유봉들을 혹사시키는 까닭에 수명을 단축시키고 월동식량의 불량(농축이 덜 된 식량)으로 내년 봄에 설사병과 석고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5) 다음은 어느 정도의 식량을 넣어 주어야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는가인데 내가 기르고 있는 벌이 5매 정도 월동을 들 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2/3정도 이상 봉개한 것 2장과 반정도 봉개한 것 3장 정도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월동식량을 충분히 넣어 주어야 겨울에 안심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지 충분치 못하면 불안하여 긴긴 겨울동안 마음이 편치가 못합니다. 대략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가을 철 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적인 양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산식품 지리적표시제 추천

농림부는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표시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품목특성과 지리적 인과관계가 높은 농산식품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를 적용하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의 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지리적 명칭을 등록하여 보호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꾀하는 정책이다.

지리적표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비등록품이 등록품목의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와 국내적으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우리 양봉농가에서도 지역별(분회별) 또는 법인 단체별 벌꿀의 지역 명칭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으로 연계해야 한다.

본협회직원 승진발령

지난 7월 1일부로 본 협회 일부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조숙희 대리가 계장으로 승진되었으며 양봉산물연구소는 박성치 품질관리주임이 계장으로, 연구소 퇴직직원 직위공백으로 안현영 연구원이 주임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그간 인사적체로 인해 승진이 미루어졌던 세 명의 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양봉농가 및 양봉협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보였습니다.